

2016년 업무보고

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

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6. 1.



부산지방해양수산청

||| 목 차 |||

I. 일반현황	1
II. 추진성과 및 한계와 반성	5
III. 2016년 정책 환경 전망	10
IV. 비전 및 목표	12
V. 주요업무 추진계획	13
1. 신성장 고부가가치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	13
2. 북항기능 재정립 및 항만운영 선진화	17
3. 기본과현장에 충실한해사안전 및 선진 항만보안 구현 ..	19
4. 살아숨쉬는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문화 확산	22
5. 사람과 현장 중심의 수산업무 구현	25

I. 일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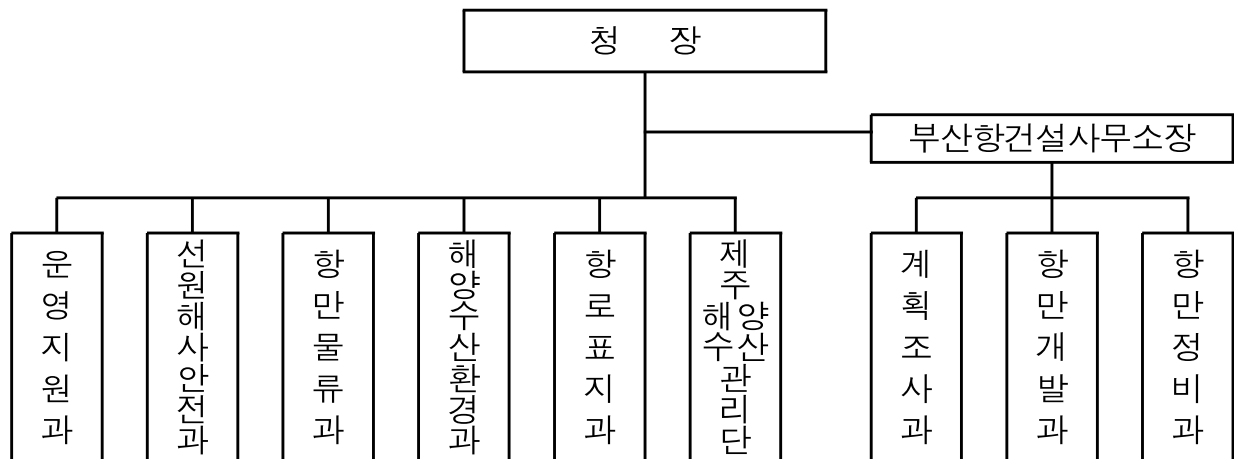
1 주요 업무

- ①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
- ② 해운, 항만, 물류산업 육성·지원 및 선원해사 안전관리
-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문화·관광·레저 활성화
- ④ 현장중심의 수산행정체계 구축 및 다기능 어항 건설

2 조직과 정·현원

◆ 기 구 : 5과, 1단, 1사무소(3과)

◆ 인 원(정/현원) : 225명 / 204명

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고공단	3·4급	4·5급	5급	6급	7~9급
합계	225/204	2/2	6/5	3/2	24/23	78/73	112/99
부산청	143/129	1/1	3/3	2/1	12/10	52/51	73/63
부건소	37/34	1/1	3/2	—	8/9	11/11	14/10
제주단	45/42	—	—	1/1	4/4	15/11	25/26

※ 청경별도(73명 : 제주단 72명, 부건소 1명)

3 예산 현황

□ (총괄) '16년 예산은 '15년 예산 대비 **22.1%** 증가한 **3,725억원**

☞ '16년 요구액(4,648억원) 대비 80.1% 반영

□ (주요사업비) '15년 예산(2,858억원) 대비 **23.6%** 증가한 **3,532억원**

※ 국회 심의과정에서 432억원 증액(부산신항 380억, 부산항개발 50억, 연안정비 2억원)

○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은 전년대비 **62.0%** 증가한 **2,226억원**, 북항
재개발사업은 전년대비 **36%** 감소한 **55억원** 반영

(단위:억원)

구 분	프로그램 (단위사업)	'14년	'15년(A)	'16년		증감	
				요구	확정(B)	B-A	(%)
총 계 : ㉠+㉡		2,402	3,051	4,648	3,725	674	22.1
㉠ 인건비·기본경비		206	193	193	193	-	-
㉡ 주요사업비(합 계)		2,196	2,858	4,455	3,532	674	23.6
일반회계	소 계	261	223	157	134	△90	△40.4
	해양환경보전	214	147	128	105	△43	55.6
	해양정책및영토관리	1	2	2	2	-	-
	해양수산정보화	19	19	19	19	-	-
	해운산업 선진화	26	54	7	7	△47	△87.0
	해양및해상교통안전	1	1	1	1	-	-
교통시설 특별회계	소 계	1,831	2,453	4,033	3,179	726	29.6
	부산신항개발	978	1,374	2,645	2,226	852	62.0
	부산항개발	598	861	1,029	761	△100	△11.6
	부산북항재개발	141	86	195	55	△31	△36.0
	항만시설유지보수	27	45	41	41	-	-
	항만보안시설	20	7	31	19	12	171.4
	항로표지시설	67	80	92	77	△3	△3.8
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	소 계	104	115	115	115	-	-
	유류비보조	104	115	115	115	-	-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	소 계	-	67	150	104	37	55.2
	국가어항	-	65	148	102	37	56.9
	어업경영체등록	-	2	2	2	-	-

※ 인건비 및 기본경비, 기타 본부 일괄배정 사업은 요구액 기준으로 작성

※ '14년, 15년 예산 : 이월을 제외한 연도말 예산현액 기준임

4 항만시설 현황

□ (“권”전용부두) 10개 터미널 총 41선석, 적정 처리능력은 1,557만TEU

○ (북항) 5개 터미널 20선석(5만톤 15, 5천~2만톤 5), 처리능력 634만TEU

※ 운영 : 4개 터미널 16개 선석(우암3, 감만1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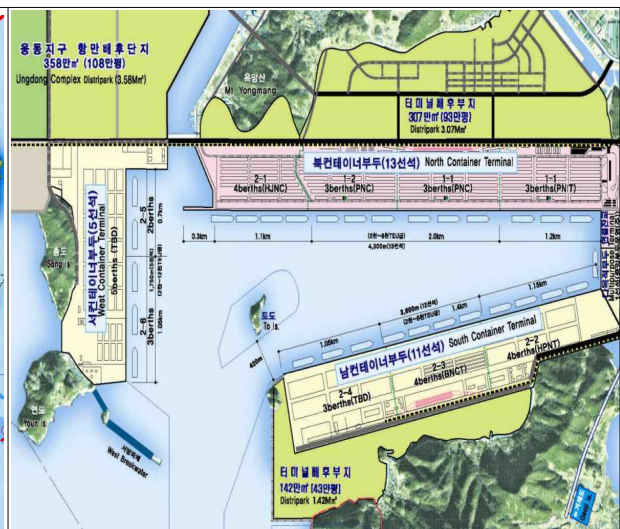
○ (신항) 5개 터미널 21선석(5만톤 17, 2만톤 4), 처리능력 923만TEU

<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시설현황>

북 항			신 항		
터미널	선석현황	처리능력	터미널	선석현황	처리능력
소 계	5만×15, 기타 5	634만TEU	소 계	5만×17, 2만×4	923만TEU
자성대	5만×4, 1만×1	170만TEU	PNIT (1-1)	5만×3	138만TEU
신선대	5만×5	200만TEU	P N C (1-2)	5만×6	273만TEU
감 만	5만×4	156만TEU	한 진 (2-1)	5만×2, 2만×2	160만TEU
신감만	5만×2, 5천×1	78만TEU	현 대 (2-2)	5만×2, 2만×2	160만TEU
우 암	2만×1, 5천×2	30만TEU	BNCT (2-3)	5만×4	192만TEU



< 북 항 >



< 신 항 >

5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

- (“컨”물동량) 선진국 경제 회복 둔화, 중국 산업구조 변화,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꾸준한 물동량 증가와 환적화물 유치에 힘입어 1,625만TEU*('15.10기준) 처리

* '13년 (17,686천TEU) → '14년(18,683천TEU) → '15년 10월(16,255천TEU)

※ '15년말 전망 : 1,960만TEU 예상

□ 북항 vs 신항 물동량 비중 추이

(단위 : TEU)

구 분		'10	'11	'12	'13	'14.	'15.1-10
총계		14,194,334	16,184,706	17,046,177	17,686,099	18,683,283	16,254,925
북항	물량	8,709,107	8,433,841	7,603,487	6,722,732	6,716,888	5,490,128
	비중	61.4%	52.1%	44.6%	38.0%	36.0%	33.8%
신항	물량	5,485,227	7,750,865	9,442,691	10,963,367	11,966,395	10,764,797
	비중	38.6%	47.9%	55.4%	62.0%	64.0%	66.2%

※ '15. 10현재 물동량은 북항 33.8%, 신항 66.2%이며, 신항 물동량 비중 매년 증가추세

□ 신항 컨테이너 물동량

(단위 : TEU, %)

구분	'14.10 (A)	'14.1~10 (B)	'15.9	'15.10 (C)	'15.1~10 (D)	전월 대비	전년대비	
							A/C	B/D
전체	1,031,555	9,956,584	1,090,267	1,091,552	10,764,797	0.1	5.8	8.1
수입	229,513	2,084,806	213,214	218,120	2,157,474	2.3	△5.0	3.5
수출	233,294	2,213,770	240,297	210,235	2,268,985	△12.6	△9.9	2.5
환적	568,748	5,658,008	636,756	663,197	6,338,338	4.2	16.6	12.0

※ 전년 동기('15.10까지) 대비, 컨 물동량은 8.1% 증가(수입 3.1, 수출 2.5, 환적 12%↑)

Ⅱ. 추진성과 및 한계와 반성

1 주요 성과

□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운영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

- 2M(Maersk, MSC)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환적물량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('14.10) 대비 4.8% 증가한 16,255천TEU 처리('15.10)
- 부산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'부산항 크루즈 지역발전 협의체' 구성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지원 워킹그룹 운영('15.3~)
 - ※ 부산청, BPA, 부산시, 부산관광공사 등 참여
- 「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」 협약 체결('15.9), 「노·사·정 한마음 팀워크 행사」('15.5) 등 노·사·정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
 - ※ 부산항운노조, 부산항만물류협회, 부산항만산업협회, 부산청, BPA 등
- 급유선 운송료 현실화 유도*로 항만운송 안정화 기여('15.10)
 - ※ 정유사·급유선업계간 이해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해 정례 간담회 개최 합의(반기별)

□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 조성을 위한 신항 인프라 적기 확충

- 갈수록 증가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남'컨'부두 (2·4단계, 3선석) 기공식* 개최 및 배후단지(1공구)** 발주 추진
 - * (기공식) '15. 12. 11.(금) / 남컨 배후지 /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약500여명 참석
 - ** (사업개요) 부지조성 42만㎡ / '14~'21 / 1,742억원('16년 344억원)
 - ※ (분할시공) 2공구(BPA, 53만㎡/1,489억) / 3공구(BPA, 49만㎡/1,075억)

- 부산항 신항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송도 준설토투기장 완공* 및 박지 증심**('16→'17m) 준설을 위한 '16년 예산 확보

* (송도투기장) 호안 2.65km / '14.12~'15.4 / 449억원

** (박지증심) 준설 53만㎥ / '16.~'17. / 76억원

□ 해양문화 관광이 융합된 복합 기능 항만조성 등 북항재개발 사업 적기추진

- 방파제 등 1-1단계 외곽시설 준공*,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** 완료, 부산역-국제여객터미널 연결 보행데크 설계*** 추진

* (외곽시설) 방파제 150m, 호안 3.5km 등 / '09.2~'15.12 / 624억원

** (지하차도) 지하차도 설치 1.86km 등 / '13.12~'15.12 / 2,145억원(설계비 29억원)

*** (보행데크) 보행데크 설치 1식 / '15 ~'18 / 1,139억원 (설계비 20억원)

-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(29천㎡) 무상 임대 결정 * 연면적 40천㎡ / '17.2~'20.2 / 2,115억원(부산광역시)

□ 정온도 향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외곽방파제 적기 준공

- 다대포항 정온을 확보하고 부두 이용률 제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* 방파제 1,000m / '12.11~'15.12 / 1,124억원

□ 사람·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및 선원해사 정책 추진

- 선박안전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(4명, '15.4~)을 배치,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정기·수시 점검* 및 교육강화**
 - 사업장 31개사 및 선박 189척 : 개선명령 627건, 전 총 1,210건 시정('15.11기준)
 -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안전관리자 및 선박 승무원 교육실시(62개사 607명)
- 해사노동협약 발효('15.1.9)에 따른 해사노동 인증검사 내실화 도모
 - 인증검사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인증검사(183척) 및 증서 발급(249척)(연중)
 - 「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」 발간(9.30) 및 선사 안전·선원 관리 담당자에 대한 협약 이행방안 교육 실시(10.21)

□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 관리·운영

- 노후된 항로표지를 일제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
 - * 노후 레이콘 개량, 유인등대 상용전원 안정화 공사, 유·무인표지 대수선 추진
- 낙동강 하구수로 노후 등주 교체로 영세어민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
 - * 3개수로(안골·송정·눌차) 등주 정비30기

□ 부산항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조치

- (유류터미널) 인화점 60도 이하 석유류제품 공급시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제한조건 등 부기사항 확인 의무화

* 유류터미널(8개사)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완료

- (컨 터미널)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추가 확보 및 상시배치 조치

* ‘컨’터미널 5개사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

□ 부산항 항만보안 강화 및 위기대응 능력 제고

- 부산항 보안 강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·시행
 - 최근 5년간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보안 강화 방안 마련 시행
-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요주의선박(감천항 풍치봉수망)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계기관 협업 체제 구축* 등 보안 취약요인 해소

* 보안대책협의회(10회) 및 관계기관 회의개최를 통하여 기관별 역할 부여 등

□ 국민과 함께하는“체험형 해양 교육·문화·레저사업”전개

- (마리나업 활성화) 등록 첫해, ‘마리나 수도 부산’을 만들기 위하여 지자체 합동으로 집중등록기간 운영 등 전략적 홍보로 목표 달성(10척 등록)
 - ‘15.7.부터 등록 시작, 부산이 전국에서 최대 등록(24척 중 10척, 41.6%)
- 상설카약체험장(총 4개소, 카약 290대 비치)은 ‘14년 17천명보다 증가한 70천명(411%증)이 체험하는 등 해양레저 활성화 도모

* 체험인원(70천명) : 광안리 15, 송도 19, 수영강 24, 삼락 생태공원 12

- 바다의 날 행사(5.29~31)시 다양한 카약프로그램 운영(419명 참가)
 -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한“海품날”행사(‘15.8, 871명)

- 초·중고생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해양교육·홍보 추진

※ 2015년 Wesea Academy 실시(10회, 중학교 9개교, 510명)

※ ‘해양환경보전 체험교실’ 실시(2회,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83명)

□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및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문화공간 조성

- 부산연안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및 다양한 해양오염원 제거 활동 전개
 - * 다대포항은 실시설계 완료(수거면적 : 346,941㎡, 설계비 645백만원), 16년 착수
 - ** 남항은 ‘남항클린실무협의회’ 발족(‘14.12), 키클미팅(‘15.2) 및 오염관리방안 협의(‘15.12)
 - *** 용호만은 해양항만행정협의회(‘15.10) 안건을 통한 지자체의 개선방안 강구
- 국내 최고 방제장비(오일붐C형) 및 유회수기(시간당 50t)를 탑재한 ‘항만 정화1호’ 건조(‘15.9.) ※ 청항선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(‘15: 350톤)
- 해운대해수욕장 옛 모습 복원을 위해 백사장 복원사업(40→60m) 지속 추진
 - ※ 양빈 62만㎡, 잠제 330m 등 / ‘12.11~’17.2 / 344억원
- 등대를 이용한 친 해양문화 확산
 - ※ 대변항 월드컵등대 주변 테마공원 조성(‘15.12), 영도등대 음악회 7회, See & Sea 갤러리 16회, 여름등대 해양학교 운영, 등대사랑그림그리기 대회 등

□ 정부 3.0 행정서비스 구현

- 정부3.0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해운항만정보 서비스 고도화
 -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7개 센터*별로 분산·운영 중인 Port-MIS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·지원(‘15.6~12)
 - * (해수부) 부산/인천/여수해수청, (PA) 부산/인천/울산/여수광양항만공사
 - 부산청과 제주단 홈페이지를 통합·구축, 민원 서비스 제고(‘15.12)
-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의 확인·검증 시스템을 구축(‘15.11)하는 한편 RFID 항만출입증 발급창구 단일화(BPA, ‘15.6)로 이용자 편의도모
-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정부3.0 건설행정 구현
 - “찾아가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개최”를 통해 지자체(구·군)로 직접 방문하여 지역 현안 조기 해결에 노력
 - ※ 9개 구·군의 지역현안(총 44건) 협의 완료 :반영(27), 장기검토(7),반영곤란(10)
- 항로표지 기반 해상기상신호 정보 시스템 구축
 - 주요 항로표지(12개소)에서 기상 정보 수집 후 기상청과 데이터 상호 공유 및 관내 국제여객터미널, 해양경비서 등에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 제공

2 한계와 반성

① 항만건설 분야

- ‘(가칭)항만재개발 재정지원 기준’ 미확정으로 보행데크 수시배정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

② 항만물류 분야

- 메르스 여파로 감소된 크루즈 관광객 회복을 위해 상해 크루즈 관계자 간담회(7.30~31)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입항 취소
 - ※ 크루즈선박 입항계획 총44회 중 29회 취소
 - ※ RCI : 13회 / Princess : 6회 / Costa : 3회 / Skysea : 5회 / 기타(일본) : 2회
- 항만보안 시설 개선 및 현장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, 감천항 보안사고 발생 증가

③ 선원해사안전 분야

- 501 오룡호 침몰 관련, 관련 규정 미비* 등으로 즉시 대처가 미흡 하였으며, 부산~제주 항로가 경영 악화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침체
 - * 승하선공인 등 제도개선 T/F팀 구성·운영(‘15.11~)을 통해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, 일괄공인 도입 등 검토

④ 해양환경 수산분야

-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이후 재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 부족 및 ‘15년 지방청으로 이관된 어업경영체 등록이 어촌계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수어류 및 내수면 양식 등은 등록이 저조

⑤ 운영지원 분야

- 메르스 사태 이후 대외 환경 악화 간담회, 각종 행사, 직원 현장 근무 체험 등 대외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 시행됨에 따라 내실있는 행정 추진 미흡

Ⅲ. 2016년 정책 환경 전망

1 국내외 경제여건

□ (세계 경제) 확장적 거시경제정책, 낮은 원자재 가격,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
※ 성장률 전망 OECD : ('15) 2.9% → ('16) 3.3% / IMF : ('15) 3.1% → ('16) 3.6%

○ 세계 교역량 감소, 美 금리인상 등에 대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,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하방요인 존재

□ (국내 경제) 주요국(중국·호주 등)과의 FTA 효과, 저유가·임금상승 등 소비 증가세 확대로 3% 내외의 성장 예상

※ 성장률 전망 OECD : ('15) 2.7% → ('16) 3.1% / KDI : ('15) 3.0% → ('16) 3.1%

○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, 대외적으로 중국 경기둔화, 美 금리 인상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

2 분야별 전망

① 해운

□ (해운동향) 선진국 경제 회복 둔화, 중국 산업구조 변화,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본격적인 시황 회복 지연 예상

□ (총물동량) '20년까지 연평균 약 3.2% 증가할 전망('15년 14.4억톤 → '20년 17.1억톤)이며, '16년은 14.8억톤으로 전망

○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*은 매년 감소 추세(△0.5%)

*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예측치 추세 : ('13) 4.5%, ('14) 3.7%, ('15) 3.2%

□ (부산항 “컨 물동량) 2M(Maersk, MSC)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부산 환적물량 증가에 힘입어 '15년(1,960만TEU 예상) 대비 4.5% 증가한 2,048만TEU 예상(KMI)

② 해사안전

- 해양수산분야 재난·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
 - 세월호('14.4), 돌고래호('15.9) 사고 등에 따른 안전관리 수요 확대 및 해사안전을 위한 대내외 규제 지속 강화
- 해사안전,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협약 규제 지속 강화 전망
 - IMO는 국제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기국 및 항만당국의 강력한 통제 요구
 - 부산항 입항 선박의 안전수준에 따른 차등적 점검 시행 필요

③ 해양환경·관광

- 기후변화,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재해 대응 필요성 증가 및 해양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용범위·대상 확대로 연안개발 수요 증대
 - ※ '50년까지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치(IPCC) : 32cm (동해안 해수면은 27cm)
- 크루즈, 마리나 등 해양관광·레저 서비스 산업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연안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
 - ※ 해양관광여행 이동 증가(KMI) : 169백만일('10) → 305백만일('15) → 406백만일('20)
 - ※ 요트·보트 증가 : ('07) 4천척 → ('13) 10.2천척 → ('17) 20천척 → ('20) 28천척

④ 수산

-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(331만톤)은 세계 생산량(183백만톤)의 1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지난 10년간 약 31% 증가('04 : 252만톤 → '14 : 331)
 - 연근해 생산*은 정체('04: 108만톤→'14: 106)가 뚜렷하나 양식생산**은 기술 혁신 등으로 지속 성장('04: 92만톤→'14: 155)하여 '06년부터 연근해 생산을 상회
 - * 연근해 생산(만톤/조원) : ('12) 109/3.95 → ('14) 106/3.79 → ('16) 110/4.00
 - ** 양식 생산(만톤/조원) : ('12) 149/1.76 → ('14) 155/1.93 → ('16) 173/1.97

IV. 비전 및 목표

비 전	세계속의 명품항 실현, 미래를 여는 해양강국 도약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목 표	◆ 신항 '컨' 전용부두 확충 (‘15년, 21선석 → ‘20년, 30선석)
	◆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2,000만TEU 돌파 (‘16년, 2,048만TEU)
	◆ 안전한 부산항, 투명하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
	◆ 맞춤형 수산환경 인프라 구축

5대 정책과제	세부 추진 과제
신성장 고부가가치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신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고도화 전략 추진 2 해양문화·관광이 융합된 복합기능 항만조성 3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기반 조성
북항 기능 재정립 및 항만운영 선진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북항 재도약 발판 마련 5 성숙한 항만운영 여건 조성 및 항만시설 기능강화 6 항만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부 3.0 구현
기본과 현장에 충실한 해사안전 및 선진 항만보안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 해양안전 危害 요소 사전 차단 8 현장 중심의 해사안전·문화 혁신 선도 9 고품질 항행안전 및 항만보안 서비스 구축
살아 숨쉬는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문화 확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11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12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해양문화레저 저변확대
사람과 현장중심의 수산업무 구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3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 정착 및 어업인 자원 강화 14 다기능 어항건설 및 지원부두 확충

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

신성장 고부가가치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

◆ 컨테이너 부두 확충, 배후물류단지, 배후도로망 등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명실 상부한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도약

1 부산항신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고도화 전략추진

① 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을 통한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 육성

■ 신항 '컨' 부두 21선석(하역능력 1,245만 TEU)을 운영 중이나 물동량 추이*를 감안, '30년까지 23선석 추가 확보 필요

* '14년) 1,868만TEU → ('20년) 2,396만TEU → ('30년) 3,315만TEU (연평균 3.6% ↑)

○ ('컨'터미널) 남컨 2-4단계(3선석/'15~'20/민자 4,409억원), 서컨 2-5단계(2선석/'12~'18/2,618억), 서컨 2-5단계(추가 1선석/'16~'19/1,189억), 서컨 2-6단계(2선석/'17~'20/3,877억)

* '15년말 현재 '컨' 전용부두 21선석 운영 중(연간 하역능력 923만TEU)

○ (수역시설) 초대형 '컨'선의 안전한 입·출항을 위한 쏘 수역 17m 증심(박지 포함) 준설 지속 추진 토도제거 공사발주('16.10) 및 방파제 박항로확장 공사착공('16. 4)

* (준설) 1,105만^m / '14.12~'17.3 / 551억, '16년 152억

** (토도제거) 토석제거 204만^m / '16~'19 / 3,456억원('16년 50억원)

*** (항로확장) 준설 560만^m / '16~'17 / 280억원('16년 85억원)

○ (준설토 투기장) 송도투기장 수토 용량을 고려하더라도 '18년 이후에는 투기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신규투기장 확보 추진

* (사업개요) 호안 1.6km / '16~'18 / 1,039억원('16년 50억원)

- (배후단지) 항만 배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후물류단지 지속 조성
 - 서권1단계, 50만 m² / '13.8~'18.2/682억원('16년 77억원)
 - 남권 배후단지, '21년까지 144만 m² 공급 목표로 '16. 2공사 착공
- (배후 수송시설)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망 지속 확충
 - 남권 진입도로, 남권 배후단지와 거가대로(성북C)간 연결도로 기본설계 추진
 - * 도로 0.8km(4차선) / '16~'20 / 352억원('16년 설계비 6억원)
 - 서권 진입도로, 웅동 배후단지와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
 - * 도로 1.25km(6차선) / '16~'18 / 377억원('16년 16억원)
 - 배후도로, 웅동 배후단지와 남해고속국도(진례J)를 연결하는 제2배후도로 건설 지속 추진(연결교량 및 터널 등)
 - * 도로 15.3km(4차선) / '12.7~'17.1 / 3,499억원(민자)
 - 신항-북항 연결도로, 신항과 북항 간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'16년 국가지원금 지급(부산시)
 - * 재정지원 2,380억원(총사업비 1조 3,377억원), '15년까지 2,303억원, '16년 77억원

② 다양한 항만지원 인프라(서비스) 추진

- (수리조선단지)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의 사업제안서* 검토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개시 예정('16.상)
 - * (사업개요) DRY DOCK 4기, 외장안벽 3선석(1,100m), 부지조성 39만m² / 4,932억원
 - ** (제안자)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(주)(가칭)
- (배후단지 활성화 지원) 물류·제조기업에 차등 적용하는 임대료 체계 일원화('16.7, 제조기업 부담 완화) 및 단지 내 종사자 숙소 건립* 등
 - *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201실 규모(5층)로 건립('16년 실시설계 착수, '18년 입주)

② 해양문화·관광이 융합된 복합기능 항만조성

① 국제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북항재개발 기반시설 적기 추진

- 북항 재개발 사업지구의 접근성 및 충장로 통행차량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하차도(1.87km) 건설공사 착공

* (사업개요) 상부 6~8차로(1,98km) 등 / '16~'19 / 2,145억원('16년 55억원)

《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개요》

- 사업구역 : 북항 1-4부두, 중앙부두, 부산항 국제·연안여객부두 일원
- 사업기간 / 사업규모 : '08~'19(12년) / 부지조성 1,532천㎡(≒46만평)
- 사업비 : 8조 5,190억원(정부 2,157억원, BPA 1조 8,233억원, 민자 6조 4,800억원)

② 해양관광 산업의 핵심 동력인 크루즈산업 인프라 확충

- 크루즈선 대형화와 급증하는 국내 기항 크루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도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(8만G/T → 22만G/T) 공사 착수

* (사업개요) 안벽 보강·확충 440m, 준설 85천㎥ / '16~'18 / 440억원('16년 125억원)

③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기반 조성

①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 중심항만으로 도약

- (종합육성계획)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선용품, 수리선박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육성계획*수립 추진

* 부산청, 부산시, BPA, BTO 공동용역(12천만원, '16.1 발주)

- (지역발전협의체)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기항 확대,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'크루즈활성화 지원과제' 추진·마케팅효과 증대방안 마련

- 업계 의견 수렴 및 지역발전협의체를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액션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(반기별)

- (크루즈 부두) 사용자 편의에 입각한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 운영 개선(CIQ 시설 설치) 등

② 마리나 수도 육성을 위한 등록률 제고 및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

-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보관·계류업을 하고자하는 자를 적극 발굴하여 등록 유도 추진(23건 : 보관·계류업 3건 포함)

* 관내 마리나업 12개 업체(총 12개 마리나선박) 등록('15년말 현재)

- 관내 등록업체, 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치기구를 구축, 관심사항 협의 등 부산 마리나 업계간 상생방안 도모

* 부산 마리나 네트워크(가칭)를 구성('16년 초)

- 우리청 등록업체가 참여하는 마리나선박 승선 체험행사인 '요트 맛보기'(약칭 '요맛') 행사를 민관협력에 의해 추진

* 세부계획 수립(2~3월), 요트맛보기 행사 개최(4~5월)

- 마리나업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집중등록 기간운영* 및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** 실시

* 미등록 레저기구 운항 및 불법 마리나업 영업행위 단속 방안 협의('16.상)

** 부산시와 합동으로 마리나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집중 등록기간 편성·운영('16년 말)

③ 친환경·고부가가치 항만 구현

- '컨' 환적화물 관리효율 제고, YT 연료 LNG 전환 등 효율 극대화
 - 부산항 내 터미널간 환적화물 인센티브제 도입('16.6) 및 공동배차 시스템 도입*(시범운영, '16.하)으로 '컨' 환적 운송 효율성 극대화

* 운송사-선사-운영사간 배차정보 공유시스템 시범운영방안 마련('16.하)

- 항만 YT 연료 전환(경유→LNG) 사업 지속 추진('16.12, 35대)

2

북항 기능 재정립 및 항만운영 선진화

- ◆ 컨테이너 처리기능을 신항으로 집중화하고, 북항 운영사 통합을 통한 부산항 경쟁력 강화

4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북항 재도약 발판 마련

① 북항-신항간 상생 발전 도모 지원

- “부산항 ‘세계 2대 환적거점항’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” 수립(‘15.7/국무회의)에 따른 북항 터미널 운영사* 통합지원(‘16.6)

* BPA, 북항 운영사간 통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체결(‘15.12.4)

- 기본협약서 체결(운영사 통합, ‘15.12)에 따른 ‘북항 운영사 통합 추진 TF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통합 협의 지원

② 북항, 해양산업 클러스터 도입

- 유희화되는 북항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新해양산업을 집적·육성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도입

* 요트·마리나, 수산물 가공 산업 등 활용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

5 성숙한 항만운영 여건 조성 및 항만시설 기능강화

① 항만운송 산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력 강화

- “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”시행(‘15.7)에 따라 인가요금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(‘16.상)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
- 항만인력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「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」 운영* (시범운영(∼‘16.3), 본격운영(‘16.4∼))

* 채용 심사 및 협의회 운영규정 보안을 위한 수급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분기 1회 개최

- 노·사, 노·노간 분쟁 등 항만 내 갈등의 원활한 협의 도출을 위한 「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」 설치·운영(항만운송사업법 개정, ‘16.상)

- 예선업 신규 등록자와 기존 예선업자간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 추진(‘16.상)

② 항만가동률 제고 및 부두기능 향상을 위한 보장

- (북항) 노후 조도* 방파제 보장 시행 및 오륙도**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('16.3)

* (조도) 방파제 700m 보장 / '15.2~'20.3 / 768억원('16년 151억원)

** (오륙도) 방파제 1,004m 보장 / '16.3~'21.3 / 1,499억원('16년 216억원)

- (용호부두) 부두 이용률 향상 및 유람선·관광선 안전 계류를 위한 방파제 축조 공사* 시행

* 방파제 200m 신설 / '14.7~'17.1 / 263억원('16년 91억원)

⑥ 항만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부 3.0 구현

① ICT 기반 항만행정서비스 강화

- 부산청'검수정보시스템'과 Port-MIS(BPA) '컨' 화물신고 정보연계로 '컨' 화물신고 누락 검증체계 도입('16하)

- 승하선 공인 정보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무원/승객명부와 연계 정보시스템 개발로 출입국 심사시 동일여부 확인('16상)

-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(SP-IDC*)를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에 통합·재구축하여 맞춤형 항만물류 통계정보 제공 지원('16.하)

* SP-IDC : 전국 해운·항만분야의 물류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

- 신규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·운영('16.11)에 따른 DR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성 및 기반환경 재구축('16하)

②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정부 3.0구현

- 「해양클러스터 기관장 협의회」 활성화를 통한 입주기관 지원강화

* 부산청을 중심으로 동삼혁신지구내 입주기관의 애로사항 및 현안해결을 위해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

- 제2회 '찾아가는 해양수산행정협의회' 운영 및 지역대학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공법 견학 등 실무기회 지속 제공

3

기본과 현장에 충실한 해사안전 및 선진 항만보안 구축

- ◆ 해양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·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“안전사고 없는 부산항 만들기”

7 해양안전 危害 요소 사전차단**① 부산항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취약분야 통합관리**

- 취약개소(고질민원 포함) 발굴 민·관·학 협의회 개최(3월)
-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세부 실천과제 지속 관리(연중)
 - 개선과제 주관·협조 부서 선정에 따른 과제별 관리(총 23건)

②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

- 위험물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및 초저유황 경유(인화점 60도이하) 선적실태 등을 지속 점검(분기별)
 - 위험물 반입제한기준 재설정 추진(16.상)
 - 부두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위험물 반입 제한량 재설정 및 위험물 관리단위 변경(TEU → NEQ*) 추진
- * 포장용기, 외피 등을 제외한 순화약량(Net Explosive Quantity)

8 현장 중심의 해사안전문화 혁신 선도**① 해양 안전의식 제고 및 해사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**

-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해양안전캠페인 전개
 - * 사진공모전 및 홍보달력 제작·배포(4분기), 해양안전의 날(매월 1일) 행사 활성화
 - 부산항 해사안전연구회 개최(월 1회)
 - 해사안전부문 종사자*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적 직무수행, 공직 내외 공동연구 활성화로 학습조직화 및 협업 촉진
- * 해사안전분야 선사, 검사기관, 관련 법규 및 선박 운항 설비 등에 관심 있는 자

-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해사안전업무 전문성 강화
 - 화물 적재·고박 상태에 대해 Tokyo-MOU 회원국간 집중점검 시행(9~11월)
 - 외국 항만국통제관과 상호 교환근무를 통한 국제협약 관련 정보 공유(연중)
- 수입위험물컨테이너 개방점검 확대(156TEU → 170TEU) 및 화물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②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상 국적선의 관리 및 지원 강화(연중)
 -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중간인증검사 대상선박(79척)에 대한 중간인증검사 시행(증서발급 포함) 및 사후조치 강화(연중)
 - * '16년도에 중간인증검사가 도래한 선박(424척)에 대하여 인증검사 수검 독려
 - 국적선에 대한 인증검사 및 외국 항만에서의 국적선 항만국 통제 점검 결과 분석* 및 환류를 통한 협약 이행 능력 제고(상·하반기)**
 - * (분석항목) 국가별, 선종별, 협약기준 14개 항목별 등
 - ** 「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」 개정판(제2판) 발간·배포(상), 설명회 개최(하)
 - 쏘 지방청의 외국적선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 우리청의 'MLC 전담팀(3명)'을 'MLC 운영지원팀(5명)'으로 개편 지속 추진('16.1~)

9. 고품질 항행안전 및 항만보안 서비스 구축

- ① 안전한 통항여건 조성을 위한 항로표지 설치·운영
 - 신규 항행 위해요소 항로표지 설치(해운대잠제등표 2기)
 - 주요 해상공사 현장에 맞춤형 사설항로표지 설치 운영
 - 부산신항(서권부두, 2·4단계, 중심준설),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
 - 항로표지의 주·야간 상시 점검 및 육·해상 상호 보완점검 실시(연중)
 - * 항로표지 현황 : 755기(국유624, 사설131) → '15.11.기준 99.96%, IALA권고율 : 99.8%)
- ② 소규모 영세어민 보호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·운영
 - 소규모 항포구 맞춤형 항로표지 설치
 - 학리서방파제등대, 대항어항방파제등대('16.2~7/150백만원), 문동 및 동암어항 조사등 설치('16.2~6/90백만원)

○ 낙동강 지역 하구 지역어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제공

- 낙동강 12개수로 중 3개수로(용원,신호,성북)의 등주를 수심, 유속 등 변형수로를 반영한 **맞춤형 등주**(깊이, 원형크기 및 안전표지판)로 재정비

* '16년도 등주 재정비사업 추진(92기/4억원)

③ 항만보안 서비스 강화

○ 변화된 보안환경에 적합한 보안대책 수립 등 적극 대처(연중)

- 크루즈선 모항운영, 부두통합 및 항만시설 유희화 등 변화된 보안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보안사고 취약선박 집중관리

○ '컨'터미널 통합 **RFID** 항만출입증 교체 발급률 제고로 출입보안 관리체계 안정화 도모

* '16년내 교체 발급률 90% 달성('15.12. 현재 15% 내외, 전국 항만 기준)

○ 운영사와 BPA간 항만시설보안료 대리징수 협약체결 지원('16.상)

- BPA가 항만시설보안료를 대리징수(선박료, 화물료에 포함)하여 운영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* 「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
(해양수산부 고시) 개정 예정('16.상)

4

살아숨쉬는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문화 확산

- ◆ 이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바다와 연안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

10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

- ① 해양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및 정화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
 - 대규모 오염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‘현장조치 행동 매뉴얼’ 지속 정비(수시)
 - 유류저장 및 이송시설 등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내실화(반기1회)
- ② 실효성 있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수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
 -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*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위·수탁협약 체결('16.2. 30억원), 사업추진 상황 감독 수행
 - * 본 사업 : 다대포항(1차년도 28억원 ; '16~'18), 사후모니터링 : 남항(2차년도 1억원 ; '15~'19), 용호만(5차년도 1억원 ; '12~'16)
- ③ 해양 오염원 선제적 대응 및 방제업무 강화
 - 2016년 ‘해양투기 ZERO화’ 추진에 대비, 해양배출 허용 사업장(위탁업체 16개소)에 대한 지도점검* 등 집중 관리(연중) 강화
 - * 폐기물 보관 저장시설 점검 (신고 목적외 물질 혼합여부, 계약상이 등)
 - 노후(28년) 청항선(부산933호) 대체건조 방안 모색(친환경 LNG연료 사용)

11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

- ①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 질 향상
 - (해운대) 모래 유실방지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지속추진
 - * 양빈 62만㎡, 잠제 380m 등 / '12.11~'17.2 / 430억원('16년 70억원)
 - (동삼동) 연안정비(해양박물관 인근연안 등 6개소)를 통해 동삼동 일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힐링(healing) 공간으로 조성
 - * 호안정비 등 2.8km / '15.11~'19.3 / 397억원('16년 25억원)

- (다대포)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된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을 본래의 폭 60m 백사장으로 복원하여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제공
 - * 잠제설치 2기, 호안정비 625m 등 / '16년~'18년 / 10억원 / 277억원('16년 10억원)
- ② 등대 주변 공간을 볼거리와 휴식이 있는 해양문화 공간으로 재탄생
 - 영도등대와 태종대 역사를 주제로 하는 3D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 및 3D영상관 재정비 * '16.2~8 / 150백만원
 - 자연사 전시실을 부산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태종대를 소개할 수 있는 전시실로 개선 * '16.3~8 / 100백만원
 - 유인등대 주변 노후화된 난간, CCTV, 데크 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관광객 편의제공 및 안전 확보 * '16.3~8 / 300백만원
- ③ 부산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(유선 운항금지구역 완화)
 - 자갈치시장 등 풍부한 해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 운항금지구역 완화 필요(부산시 건의사항)
 - 부산남항을 중심으로 유선 운항금지구역 완화를 위한 선박 통항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(부산시, '15.12~'16. 5)
 - * 북항 구역은 부산청에서 별도 용역 추진('16.상, 영남씨그랜트 예산)
 - 용역결과에 따라 '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' 개정 검토('16년)

12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해양문화·레저 저변확대

- ① 해양교육 확대를 통한 해양문화 확산
 - 부산지역 관련기관별 해양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추진
 - 영도지역 해양클러스트기관* 등 해양프로그램을 공유
 - * 7개기관 (우리청, 해양박물관, 해양조사원, 수품원, 해양환경개발교육원, 해양대, KMI)
 - '15년 영남씨그랜트 '해양교육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시스템' 활용 방안 협의('16년부터 활용예정이나, 주관기관 미정)
 - '자유학기제'와 연계한 Wesea Academy 지속 실시, '찾아가는 해양 교실' 운영, 해양·수산산업계 현장 진로교육 등

- 바다에서 꿈을 찾는 “해양환경보전 생태체험” 추진
 - 초·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생물분야의 실험 및 생태체험을 통해 미래 역량 배양 * 국립수산물과학원등 연구기관과 사전협의

② 해양레저·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카약체험기회 확대

- 상설 카약체험장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 추진
 - * ('14년) 17,142명 → ('15년) 58,710 → ('16년) 70,000명 목표
-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한 카약 등 해양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해양레저·스포츠의 활성화

③ 등대 해양문화 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

-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대를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연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
 - * 바다의 날 기념 등대 체험교실(5~6월), 여름등대학교(7~8월 가덕도등대), 문학과 그림이 있는 등대 축제 운영(9~10월), 등대 음악회 공연 및 노래경연 등(8~10월), 영도등대에 다양한 미술 작품 전시(「See & Sea 갤러리」, 연중) 등
- 기장권역 조형등대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
 - * 부산관광공사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한 갈맷길 걷기 등

5

사람과 현장 중심의 수산업무 구현

◆ 어업경영체 자율 등록 향상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수산정책 구현

13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 정착 및 어업인 지원 강화

① 어업경영체 등록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

- 어업인 대상 현장 교육 및 설명회 수시 개최
- 해수어류 및 내수면 양식 등 생산자 단체 등이 속한 어업인 자체 회의 또는 교육시 직접 방문 등록신청 유도
- '15년도 등록실적이 저조한 내수면 양식어업인 대상 집중 등록 추진
 - * 등록실적 및 계획 : ('15 실적) 59개소 → ('16 실적) 200개소 목표

② 어업경영체 등록 상시관리 체제 전환

- 기 등록된 어업경영체 변경사항을 현지실사를 통한 반영
 - * '14년등록 어업경영체 100% 현지조사 실시(1091개소) →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(4명)
- 자체교육 및 다른 지방청과의 워크숍을 통해 조사원간의 유대관계 증진하고, 업무역량을 강화(4월 예정)

③ 어업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어업인 확인업무 강화

- 어업인* 확인업무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시행('15.12.23)
 - *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

※ 어업인 확인서 발급절차

- 어업인 확인서 작성 → 구비서류확인 → 현지조사(필요시) → 발급
- 어업경영체 기등록자인 경우 전산으로 서류조회

14 다기능 어항건설 및 지원부두 확충

① 대변항 외곽방파제 보강공사 시행

- 항내 정온도 향상 및 어선·관공선 안전정박을 위한 외곽방파제 보강공사* 착공('16.10)

* 방파제 보강 554m, 접안시설 보강 및 신설 226m 등 / '16.10~'20.9 / 377억원('16. 12억원)

② 소규모 어촌 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개발

- '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천성항 방파제, 물양장 등 기본시설 건설*

* 방파제 360m, 물양장 320m 등 / '13년~'18년 / 379억원('16년 94억원)

③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지원부두 확충

- (접안부두) 동북아 최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기능 극대화를 위한 수산물 양육부두 확충*

* 돌제부두 2기 신설 / '13.6~'16.6 / 285억원('16년 11억원)

- (상옥시설)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양육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옥 시설* 설치

* 상옥시설 2기 설치 / '16.3~'17.12 / 126억원('16년 88억원)